

2018.09

News Letter

아이들의 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메신저인터네셔널



“함께, 그리고 성장”  
(With, Growth)



## 올 가을, 우리들의 특별한 만남, “합창”

오는 11월 6일(화), 메신저 멤버스테이가 2년 만에 열립니다.(장소:열림교회/시간:18시30분) 특별히 이번 행사는 필리핀에서 20여명의 현지 인원이 초청되어 합창, 태권도시범, 악기 연주 등 아이들이 직접 꾸미는 공연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 속 가사 말처럼, 아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끼고 사랑해준 이들에게 어설피한 한국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아이들은 점점 자신을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울긋불긋’ 가을을 특별하게 만드는 단풍은 한 가지 색이 아니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합창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 둘 합해지며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가 만들어내는 합창만의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를 진심을 담아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오셔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 앙겔레스 센터 >



5월, 앙겔레스 센터가 새 장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차량부터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이전·설치, 마당 천막 공사까지 이사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의왕우리교회와 갈릴리교회 등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덕택에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6월에 7세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여는 것으로 첫 개원행사를 가졌습니다. 깨끗하고 넓어진 새 장소에서 아이들의 꿈도 더욱 예쁘게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5월말에는 제 3차 합창지도세미나가 3박4일(5/20~5/24)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초빙된 전문 강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멤버스데이 합창공연(11월) 전, 마지막 점검의 시간을 거쳤다고 하니 그 실력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영어, 수학 등 학년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공부방은 이사한 새 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더욱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간 수련해온 코피노 태권도 시범단(5명)은 한국 국기원 등록 및 단증 발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지역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내온 은과에렘은 자질이 뛰어나 사범자격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받을 예정입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세부 센터>



한국의 두 교회(분당하늘소망교회, 경주다사랑교회)의 초청으로 세 명의 아이들(민재, 요한, 예나)과 그 보호자들이 4박5일간(5/10~5/15) 한국에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첫날 서울에서 메신저 일행의 환영 속에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고, 기념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양화진, 경주, 단양 등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 곳곳을 다니며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어도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은 늘 즐겁습니다. 세부 공부방에는 매일 오후 5시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 20명이 모여들어 각 과목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배우는 음악시간이며, 가끔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정돈해주기 위해 오시는 미용봉사자 분들도 계십니다.



7월에는 한국에서 두 팀의 단기선교팀이 센터에 방문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7월 2째주(7/9~7/13)에 방문한 인천 예일교회 청년부에서는 센터 외벽을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주었고, 3째주(7/19~23)에는 분당하늘소망교회에서 방문해 아이들과 1박2일 캠프를 하며 게임도 하고 돈독해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 본부 >



5월에는 메신저 김춘호 이사장과 이정준 이사가 필리핀에 방문(5/13~5/22)하여 양겔레스와 세부 센터를 찾아 현지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사립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아이들은 악기연주(바이올린, 플룻, 멜로디언, 리코더)와 태권도 시범, 합창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일산에 있는 제니스키즈 어린이집에서 바자회(6/26) 후 모금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아기 천사들이 필리핀의 또래 친구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아끼던 인형과 장난감들을 전달해 준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온라인뉴스(6/28)에도 게재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세부 센터에 새로운 사역자로 파송되는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의 (감리교단)파송식이 8월 26일(일) 열림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메신저의 김춘호 이사장과 김명기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자분들과 함께 세부에 더욱 즐거운 소식들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 양젤레스 묘선네

양젤레스에 사는 묘선과 승수 남매네는 국가에서 빈민 싱글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7월경), 한 이웃집 남성이 칼을 들고 찾아와 나무로 된 묘선이네 문을 찌고, 돌로 쳐 부셨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당장 이사를 가기에는 비용을 감당 할 여력이 안되어 며칠을 두려움에 떨다가 급하게 후원자를 찾아 일단 문을 철문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고 안정이 찾아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부 요한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부에서는 요한(9세)이의 동생이 생후 5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탈수증세로 갑작스레 하늘 나라로 갔습니다. 수액 살 돈이 없어 그저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는 사정을 나중에야 전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크게 듭니다. 현지 사역자분이 장례식에 찾아가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며 기도 해주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 특별한 감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올해도 어김없이 메신저 사무실로는 특별한 사랑이 담긴 많은 후원물품들이 배달됐습니다. 유치원 바자회 후, 의류, 도서, 인형 등 아이들을 위한 예쁜 선물들을 전해주시는 <제니스키즈어린이집(일산), 한경원 원장님>, 벌써 수년째 유명 브랜드의 멋지고 다양한 신발, 수 백 켤레를 후원해주신 <S-market(경주 모다아울렛), 이태경 대표님>, 아동복부터 성인복까지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고급의류들을 선물해주신 <(주)애플라인드, 김윤수 대표님>, 그리고 소꿉 놀이 세트, 미니자동차 등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동심을 선물해주신 <아세아선교신학교, 허요한 학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만남 > 이라는 것은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때로 누군가의 인생이 변하게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는 야킴(19세)의 이야기가 그에 해당될 것입니다. ”

필리핀 앙겔레스에 사는 야킴을 처음 만난 건 2014년경, 그가 열다섯 사춘기를 거칠 무렵이었습니다. 야킴의 첫인상은 외모도 멀끔한데다 성격도 차분해 좋아보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무척이나 주눅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코피노로 태어나 엄마와 두 동생(유안, 엘리자베스)을 돌보느라 자라는 내내 어리광을 피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봤을, 일찍 철들어야했던 그 소년의 묘한 의젓함은 오히려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사치일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메신저 앙겔레스 센터의 사역자분과 만나게 되었고, 야킴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똑똑하지도 않고 어떠한 장기도 없다고 생각했던 야킴은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메신저 센터에 나와 형으로서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자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지 한도장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 태권도를 배우고, 기타를 연주하는 법도 배우며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야킴은 그렇게 점점 무언가를 전해주는 멋진 선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에 방문했던 야킴(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울대학교에 방문했던 야킴(맨 오른쪽 회색티)

이런 야킴이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계기는 2016년 메신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야킴은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에 방문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때 대학에서 활기차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아 무작정 이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필리핀의 고등학교로 돌아오자 그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전까지 반에서 중간정도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던 야킴은 목표가 생기자 달라졌습니다. 특히 수학 등 부족한 과목에 있어서는 센터 공부방에 늦은 밤까지 남아 과외를 받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평균 93점의 상위권으로 우등상을 받으며 졸업했는데, 어찌보면 이것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야킴은 그 후에도 한국에 있는 미국대학에 입학하기에 자신이 아직 부족한 실력임을 깨닫고 메신저와 세부에 있는 한 기숙학원(SMEAG)의 후원으로 대학 입학에 위한 영어자격시험(IELTS)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입학 기준은 6.5였는데, 하루 4시간씩 자며 공부에 매진한 결과, 3개월이 채 안되는 시간에 최종 7.0의 높은 성적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앙겔레스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바쁘지만 그래도 꼭 들러야할 곳이 있었습니다. 메신저 세부 센터의 어린 동생들을 만나 해주어야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야킴이 어린 친구들에게 전해준 말로 끝맺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피노이기 때문에 자라는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거야. 나도 어렸을 때는 무언가를 꿈꾼다는 게 참 두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메신저를 만나고 이제는 전에 꿈꿔볼 수 없었던 것들을 꿈꿔보게 돼.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꿈. 너희도 메신저와 함께 꼭 꿈꾸는 사람들로 자라나길 바래”**

이제 겨우 열아홉, 야킴의 꿈은 오늘도 더 푸르고 예쁘게 자라나는 중입니다.

야킴의 꿈을 응원합니다.



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는 야킴(오른쪽 하얀티)



센터에서 아끼는 동생들과 찰칵(가운데)



최근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대입준비를 위해 센터에서 SAT 공부중



## 공지사항

1. 메신저멤버스데이가 오는 11월6일(화), 저녁 6시 30분에 열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1) 메신저 후원자 분들 및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18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마음을 모아주세요.

1. 각 지부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김종란, 박상규, 조은정,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님)
2. 세부 지역으로 새로 파송되는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님을 위해
3. 11월 6일(화) 열리는 멤버스데이를 통해 사역에 공감하는 후원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4. 초청된 아이들의 한국 일정들을 위해

##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